

광주 노래방 연쇄 강도 132일만에 검거 최소 10곳 이상서 범행

30대 태권도 유단자...IP추적 PC방서 붙잡아

광주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노래방 강도 사건의 유력한 30대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북부경찰은 8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도 모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연쇄 노래방 강도 용의자 목모(33,광주시)씨를 검거, 특수강도 혐의로 조사중이다. 지난해 12월 28일 광주 북구 두암동 L노래방에서 첫 범행이 시작된 이후 132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태권도 4단인 목씨는 이날 새벽 1시47분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 M노래방에 침입, 주인 박모(여·46)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님 이모(49·광주시 남구 봉선동)씨의 현금 3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M노래방 업주 박씨와 손님 이씨를 비롯해 그동안 털렸던 노래방 업주 등 피해자들을 불러 목씨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모두 "목씨가 범인이다"는 진술을 얻어냈다.

지난 3월6일 새벽 3시 38분께 광주시 동구 화동 H노래방에서 금품을 빼앗겼던 배모(43)씨는 이날 경찰에서 목씨를 확인, "범인과 동일 인물"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연쇄 노래방 강도 사건에서 빼앗긴 수표를 추적하던 중 범인이 광주시 북구 두암동 모 복권방에서 수표에 이서한 것을 확인하고, 목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이어 이날 새벽 발생한 범죄 현장 인근 PC방 이용자들을 추적

일시	장소	피해액
'06. 12. 28(목) 03:50	북구 두암동	49만원
'07. 01. 06(토) 02:30	광산 월계동	52만원
'07. 01. 13(토) 04:10	북구 오치동	60만원
'07. 01. 26(금) 01:15	북구 일곡동	77만원
'07. 02. 08(목) 03:57	북구 두암동	4만원
'07. 02. 12(일) 03:50	북구 두암동	-
'07. 02. 15(목) 04:45	서구 화정동	30만원
'07. 02. 16(금) 01:20	북구 임동	55만원
'07. 03. 06(화) 03:38	동구 학동	1,473만원
'07. 03. 25(일) 02:54	동구 수기동	-
'07. 03. 26(일) 04:30	서구 화정동	63만원
'07. 04. 04(목) 19:30	광산 월곡동	4만원
'07. 04. 07(토) 01:50	서구 화정동	20만원
'07. 05. 08(화) 01:47	북구 중흥동	35만원

한 끝에 목씨의 IP를 찾아내 이날 검거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목씨는 이날 새벽 두암동 노래방 강도사건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할 뿐 지난해 12월 이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13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목씨의 차량 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와 의류, 모자 등이 있고, 피해자들이 한결 같이 목씨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미뤄 목씨가 최소 10차례 이상 노래방 강도를 저지른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이홍희기자 galee@kwangju.co.kr



8일 광주북부경찰에 검거된 노래방 강도 용의자 목모(33)씨가 범행과 도주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승용차. 경찰은 승용차 안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와 모자, 복면, 장갑, 침낭 등을 찾아냈다. /나명주기자 mjna@

박정희 정권은 이들 교수를 '긴급조치 9호 위반'(사실왜곡 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중앙정보부 전남지부 지하실로 연행했다. 송기숙 교수는 구속됐고, 다른 교수들도 사표를 써야만 했다. '교육지표' 사건으로 불리는 성명서 발표는 이후 5·18만중광쟁 등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불씨가 됐다.

스승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독재에 맞섰던 이들 11명의 교수를 기리기 위한 기념 조형물이 오는 6월27일 전남대에 들어선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유신 반대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 29돌 '교육 민주화' 조형물 세운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가 극에 달했던 1978년 6월 27일,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사뿐 아니라 지성(知性)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 전남대에서 일어났다.

김두진·김정수·김현곤·명노근(작고)·배영남(작고)·송기숙·안진오·이

방기(작고)·이석연·이홍길·홍승기 등 전남대 교수 11명이 유신독재의 교육 이데올로기였던 "국민교육헌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성명서는 당초 전국의 교수들이 동참해 서명하기로 계획돼 있었으나 사전 발각 조짐이 감지되면서 전남대 교수 11명만이 서명한 채 AP통신과 아시아 등 외국 언론사로 보내져 세상에 알려졌다.



8일 오후 장성군 황룡면 제병협동훈련장에서 열린 '2007년 장애물 운용 및 극복 시범 훈련'. 이날 육군 공병학교의 폭파 시범 중 날아온 돌로 장교 2명이 부상을 입고 취재차량이 파손됐다. /장성=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사고 시범' 된 폭파 시범

장성 육군공병학교...안전 소홀로 장교 2명 부상

육군 공병학교의 대규모 폭파 시범 훈련을 참관하던 장교 2명이 안전 소홀로 부상을 입고 차량이 파손됐다.

8일 오후 2시30분께 장성군 황룡면 육군 공병학교 제병협동훈련장에서 열린 폭파 시범 중 교육생 A중위와 B중위 등 2명이 폭발로 인해 날아온 돌에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사고 당시 이들은 훈련장으로부터 450여m 떨어진 관람석에서 현장을 지켜보던 중 날아온 돌에 팔과 다리 등을 맞았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훈련장에서 300여m 떨어진 주차장에도 폭발 때 발생한 돌이 날아들어 모신 문자 취재차량 1대의 지붕이 일부 파

손됐다. 이날 시범에 사용된 폭발물은 ▲액체폭약 ▲M16A1 대인지뢰 ▲K442 대전차 지뢰 ▲미클릭(MICLIC·대전차 지뢰 제거 폭발물) 등 13종이다.

군 관계자는 "폭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거리 확보·안전모 착용 등 사고 방지책을 마련 했으나 바람이 거세게 부는 등 기상 조건이 나빠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날 1시간 30분간 진행된 폭발시범에는 상무대 지역 교육생 및 간부·(주)한화 관계자·군사학과 학생·예비역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204) 김종두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 도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본사(062)514-3002 ▶공방(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광주점(062)525-9002 ▶전주점(063)271-5051

'어버이날' 화염 속 아버지 구하고...

여수 가정집서 화재...중학생 은 몸 화상

어머니·할머니는 숨져

'어버이 날' 화염 속에서 아버지를 구한 중학생이 은몸에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8일 새벽 0시21분께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장모(52)씨 집에서 화재가 발생, 장씨의 어머니(86)와 부인(51) 등 2명이 연기에 질식사돼 숨졌다.

장씨는 화재 직후 작은방 유리창을 깨고 나와 옆집에 구원요청을 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온 막내아들 수중(15·화양중 3년)군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 장군은 손·기슴 등 몸뚱이 유리에 찔려 출혈이 심했으나,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안방에서 잠을 자다 미처 피하지 못한 아버지를 안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장군 부자는 서울 베스티안 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재래식 아궁이에서 미처 꺼지지 않은 불씨가 건물로 번져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

명품신도시의 중흥특권을 누리는 3,813 평대단지!

▶풍명정전·호수공원 정외 최고 입지!

수원신도시 피오레

부양문의 062)367-9000

전국 들머 컴퓨터 100여대 출처



○전국을 돌며 100여 대가 넘는 컴퓨터를 출처 팔

아온 30대 컴퓨터 전문 절도범이 올5월1일부터 신설된 경찰 절도특별수사팀(TSI)에 걸렸다.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1t 화물 담 차를 끌고 전남·전북을 비롯한 충청지역 변호사 사무실·건설회사·화원 등에 침입, 컴퓨터와 현금 등 시가 1억5천만원 상당을 훔친 정모(32·무안군)씨를 8일 절도 혐의로 불검아 조사 중.

○정씨는 지난 4일 새벽 1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K건설회사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중 불잡혀 56차례에 걸친 범행에 마침표.

○경찰은 정씨가 이미 팔아치운 컴퓨터 80대도 회수한 뒤, 장물을 취득한 중고 대리점 업주들도 조사한다는 방침.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제2회 광주 전기인 체육대회

- 일시 : 2007. 5. 12(토) 오전9시[개회식]
- 장소 : OB맥주 광주공장 운동장



범 전기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제2회 광주 전기인 체육대회'를 개최하니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주관 :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 주최 : 광주광역시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 한국전력공사 전남사업본부
-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력관리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광주·전남지회
-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 ☐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 회장 윤보선 전기신문사이사 정남기
- 부회장 김영일 윤리위원장 김종철